

본회

설비건설인 2008년 신년교례회 개최



▲ 대한설비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월 8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설비건설인 2008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대한 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영식)은 지난 1월 8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설비건설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비건설인 2008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종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 기계설

비만 겸업제한 폐지 4년 유예를 관철시킨 건산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에서 우리협회는 업역확대를 주목표로 설정하여 신규 사업 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그리고 자동제어 분야에서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자동원격검침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

본회



▲ 박종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설비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인 설비건설업계 발전방안을 위해 기계설비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 업역에 추가시킴으로써 겸업제한 4년 유예에 버금가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박종학 회장은 또 “우리협회는 이제 유예된 4년 동안 설비건설발전방안을 수립하여 하도급 위주의 업역을 탈피하고 원도급 위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그동안 우리 설비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인 설비건설 발전방안은 이제 그 명분과 당위성이 분명해졌으며, 우리 협회는 학계와 연구기관, 발주관서 등 기계설비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정부나 국회에 그 명분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제정에 힘을 쏟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종학 회장은 이어서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건설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가입찰 관행 지양과 고품질의 성실시공, 신사업 업역 창출, 내실 및 인재 중시의 경영으로 기계설비가 건설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는 건설분야 블루오션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영식 이사장은 “지난 한해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건설시장 위축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야기된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으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설비건설업계와 우리 조합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금년에는 고객에 대한 책임경영 실현을 경영목표로 정하여 서비스 생산체계를 최적화하고 조합원 지원체계를 혁신하여 임직원 모두 믿음을 주는 서비스를 실천할 것이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설비조합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강석대 서울특별시회 회장과 정승일·홍평우 명예회장, 박인구 전임회장, 이동락 초대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했다.

강석대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올해 우리협회는 설비건설 발전방안이라는 대명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대명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사가 그 어느 해보다 똘똘 뭉쳐 단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명예회장은 “이제 우리는 설비건설 발전방안을 향한 우리의 원대한 꿈을 위해 한발짝 내디뎠다”면서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고, 또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씩 우리의 처지를 개선해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평우 명예회장도 “지난 해 건산법 개정에서 기계설비만 4년간 유예된 것은 우리업계의 큰 성과”라고 밝히고 “그동안 노력해 주신 박종학 회장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4년이라는 한시적

본회




▲ 이동락 초대회장, 홍평우·정승일 명예회장, 박종학 회장, 박인구 전임회장, 강석대 서울특별시회 회장, 이영식 조합이사장 (사진 오른쪽부터)이 설비건설업계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다짐하며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인 시간을 얻었지만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며 설비건설 발전방안으로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인구 전임회장은 “새정부가 들어서고 건설업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업계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크게 변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락 초대 회장도 “설비협회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설비건설 발전방안을 이야기할 만큼 시기가 도래했으며, 우리의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대한설비공제조합과 함께 매년 초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설비건설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설비건설업계 발전방향 모색과 함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본회

제113차 이사회 개최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월 25일 제11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 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1월 25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 11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8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회보지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38회 총회(정기) 소집의 건 △유공자 포상 결정의 건 △규정 개정(안) 의결의 건 △회장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종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협회는 겸업제한 폐지 4년 유예기간 동안 우리업계의 확실한 성장기반을 다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

고 밝히며 “협회의 숙원사업인 설비건설 발전방안은 사실상 너무도 어려운 사업임에 틀림 없으나 언젠가 우리가 꼭 이뤄내야 할 사업으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회의는 6대 집행부의 마지막 이사회”라고 밝힌 박종학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본인과 함께 우리업계를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감내하여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종학 회장은 또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겸업제한폐지 4년 유예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시스템에어컨·지역냉난방 설치공사, 자동원격점검 등

본회



▲ 제6대 집행부의 마지막 이사회를 기념하여 촬영을 했다.

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킴으로써 업역확대와 더불어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지난 3년을 되돌아 보며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것에 보람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6대 집행부에 처음 참여했던 지방의 이사들도 “이사회가 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회의 참석을 통해 얻은 지식은 지역 회원사에게 알리는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반 설비와 플랜트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가 균형감각을 유지해 줄 것”과 “갈수록 설비건설업계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차기 집행부는 업계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사들은 건산법 개정에서 4년 유예

의 성과를 이끌어 낸 박중학 회장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협회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 보고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시행령, 시행규칙)
-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 개정 추진
- △ 설비건설업계 정책간담회 개최
- △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 △ 산학협력 위탁교육 추진
- △ 전국 설비관련학과 우수졸업생 시상 추진
- △ 도시가스시설검사 및 감리체계 개선 건의
- △ 200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추진
- △ 부실건설업체(등록기준 미달) 명단 통보
- △ 중국안장협회 방문 및 제7차 합의비망록 교환

본회

시·도회장 회의 개최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월 23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 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1월 23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사항으로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안)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정 개정(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종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6대 집행부의 마지막 시·도회장 회의로 지난 3년간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6대 집행부에 많은 힘을 실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시·도회장님들께 감사” 하다고 밝혔다.

박종학 회장은 또 “전국 시·도회장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겸업제한 폐지 4년유예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시스템어컨, 지열냉난방, 자동원격검침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사업역에 추가시킴으로써 업역확대와 더불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지난 3년간 우리업

계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한 결과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음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보고된 그동안의 협회 주요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시행령, 시행규칙)
-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 개정 추진
- △ 설비건설업계 정책간담회 개최
- △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 △ 산학협력 위탁교육 추진
- △ 전국 설비관련학과 우수졸업생 시상 추진
- △ 도시가스시설검사 및 감리체계 개선 건의
- △ 200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추진
- △ 부실건설업체(등록기준 미달) 명단 통보
- △ 중국안장협회 방문 및 제7차 합의비망록 교환
- △ 제38차 총회(정기) 소집 

본회/위원회 소식

제51차 윤리위원회 개최



▲ 대한설비건설협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제5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한 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하) 윤리위원회(위원장 정태근)는 지난 1월 18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5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리위원회에서는 오는 2월 26일 개최 예정인 제38차 총회(정기)에서 포상 대상자인 19명의 유공회원사에 대한 추천을 심의했다.

윤리위원회의 설비건설업계 유공자 포상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설비건설업계 유공자 포상 추천 기준

- ①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 대표자
- ② 설비건설업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2007년 시공능력평가액이 기계설비공사업 10억원, 가스시공업(1종) 5억원 이상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

는 자이다.

- △ 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이나 업무수행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 △ 공사의 성실시공과 하도급질서 확립에 모범이 되어 업계의 위상을 높인 자. 단, 상습적인 저가투찰, 입찰질서 문란 등으로 설비건설업계의 도덕성에 흠이 있는 업체의 대표자는 추천을 제외
- △ 기업경영 또는 신공법 연구개발 및 시공실적이 우수하여 다른 회원의 모범이 된 자
- △ 기타 협회 및 업계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자
- ③ 단, 공사실적이 추천기준에 미달하여도 설비업계 및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회장은 추천할 수 있다. 

본회

제7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협회 접견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 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협회 접견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 정승일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7대 회장 선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 11조에 의거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선거에 관해 2월 1일자 일간건설신문에 공고키로 했다.

회장 후보자 등록 자격은 협회 회원인 설비건설업체의 대표자(등록명의자)로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 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이며, 등록기

간은 2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다. 




▲ 임중태 위원(분회 감사), 성열구 위원(대전·충남도회 회장), 박종학 본회 회장, 정승일 위원장(명예회장), 김경호 위원(분회 이사), 김영완 위원(경기도회 회장) (사진 왼쪽부터)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현판을 걸고, 공정한 회장선거관리를 다짐했다.

본회/안내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안내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설비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을 엄수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mcca.or.kr>)를 참조하기 바란다. 

□ 신고대상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을 취득한 업체로서 2008년 시공능력평가를 희망하는 업체

□ 신고기한

- 공사실적 관계서류 - 2008. 2. 15. 까지
- 재무제표 관계서류 - 2008. 4. 15. 까지

□ 신고접수처

대한설비건설협회 전국 시·도회 사무처

□ 유의사항

- 신고서류는 신고기한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

고, 접수증을 받아야 함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도회 사무처로 문의바람

□ 대한설비건설협회 전국 시·도회 연락처

- 본 회 : (02)6240-1100
- 서울특별시회 : (02)6240-1200
- 부산광역시회 : (051)866-0070
- 대구광역시회 : (053)742-8935
- 인천광역시회 : (032)888-0277
- 광주전남도회 : (062)527-3787
- 대전충남도회 : (042)823-9740
- 울산경남도회 : (055)288-4818
- 경 기 도 회 : (031)252-4178
- 강 원 도 회 : (033)251-5044
- 충 청 북 도 회 : (043)265-2274
- 전 라 북 도 회 : (063)241-0070
- 경 상 북 도 회 : (054)281-6640
- 제주자치도회 : (064)755-9828

서울특별시회

제196차 운영위원회 개최



▲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월 24일 제19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 특별시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1월 24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9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업무추진실적이 보고됐고, 2월 업무추진계획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 1월 업무추진실적

- △ 2008년도 신년행사 추진
- △ 비회원 회원가입 안내 및 실적신고 작성요령 강습회 개최
- △ 회원사 임직원 직무연수 실시

- △ 정부시설공사 입찰제도 강습회 개최
- △ 2008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 △ 회원사 업무안내 공문시행
- △ 회원사 신청서류 발급업무 실시
- △ 회원관리 업무

□ 2월 업무추진계획

- △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 △ 전원회의 및 제33회 정기총회 개최 준비
- △ 2008년도 상반기 장학금 지급
- △ 『건설산업법령집』가제본 제작·배포 

서울특별시회

협회 회원가입 안내 및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월 11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협회 미가입 설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협회가입 및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했다.

서울 특별시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1월 11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협회 미가입 설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협회가입 안내 및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했다.

비회원사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는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설비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위상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회에 가입하면 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 등 업무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는 △협회 회원가입 요령 및 절차 △협회운영 안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 △건설공사실적 위반행위 제재조치 △건설공사실적의 모든 서식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 △분류해설 및 CODE △프로그램 설치방법 △실적신고 항목별 자료입력 방법 △실적신고 입력자료 출력 △실적신고 디스켓 작성 등을 설명,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대구광역시회

시설공사 계약업무 담당자 및 전문건설등록업무 담당관 초청간담회 개최



▲ 대구광역시회는 지난 해 12월 20일 시설공사 계약업무담당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계설비공사는 분리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광역시회(회장 이한수)는 지난 해 12월 20일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들을 초청해 전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광역시회는 대구광역시 계약

계장을 비롯한 구·군청 계약담당자들에게 대구지역 내 민간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설비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를 협조요청 하고 대구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는 분리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광역시회



▲ 대구광역시회는 지난 해 12월 21일 전문건설등록업무 담당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대구광역시회는 지난 해 12월 21일 대구광역시 전문건설등록업무 담당관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구지역 건설산업 진흥계획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행정적 지원체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일반·전문

간 겸업제한 폐지로 인해 일반건설업자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으나 기계설비공사업은 2011. 12. 31. 까지 겸업제한폐지가 유예됨에 따라 2008. 1. 1. 이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신청업체에 대해 일반건설업 등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처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광역시회

4대 사회보험 실무 및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 대구광역시회는 지난 해 12월 13일 4대 사회보험 실무 및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회(회장 이한수)는 지난 해 12월 13일 회원사 임·직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보험 실무 및 실적신고 강습회를 대구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조상구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무정책팀 부장이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개념 및 설비건설업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에 대해 △사후정

산제도 △사업장·근로자 적용기준 △근로자 소득(보수) 적용기준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 시스템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대구광역시회는 대구지역 회원사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울산 · 경남도회

2008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 울산·경남도회 박동준 부회장, 김재홍 회장, 윤원용 감사(사진 왼쪽부터)가 울산·경남지역 회원사를 대표해 지역 업계의 힘찬 도약과 회원 화합을 다짐하며 떡케익을 절단 하고 있다.

울산 ·경남도회(회장 김재홍)는 지난 1월 10일 창원호텔에서 도회 임원, 지역회 원사 대표 및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부산지점장, 유관기관 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자년 새해를 맞아 지역 설비건설업계의 힘찬 도약과 회원 간 화합단결을 위해 2008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김재홍 울산·경남도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지난 한해동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시장 변화 속에서 기계설비업역을 지키고자 숨가쁘게 보냈으며 지방건설경기 침체, 건설노조 및 각종 규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그

러나 건산법 개정에 있어 우리 기계설비업종만 꺾임 제한폐지를 4년간 유예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여러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도 지역건설환경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협회와 회원사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건설경기 변화에 발빠르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침체된 현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 경남도회

결식아동 돕기 성금 전달 및 간담회 개최




▲ 김재홍 울산·경남도회 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경상남도교육청을 방문, 결식아동돕기 성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김재홍 울산·경남도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은 지난 1월 10일 경상남도교육청을 방문, 권정호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결식아동 돕기 성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울산·경남지역 설비건설업체에 대한 육성발전에 대해 건의한 결과 경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기계설비공사는 지역설비건설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울산·경남도회는 학업이 우수하나 학비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고자 매년 장학금 및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급식비 문제로 급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2001년부터 결식아동돕기운동을 전개, 2008년 1월 현재 2천여만원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전달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5년 12월, 경남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충북도회

결식아동 돕기 성금 기탁



▲ 장순경 충북도회 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1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을 방문해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충북도회(회장 장순경)는 지난 1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을 방문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학동안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장순경 충북도회 회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 받는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방학동안 점심을 거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충북도회 회원사들의 뜻을 모은 이 성금이 그 학생들에

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기용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은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관내 이웃들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에서 기탁해 준 이 성금은 방학동안 무료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